

자살 시도자의 고통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고문희¹ · 이미옥¹ · 이명선²

초당대학교 간호학과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²

A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in Suicide Attempters

Ko, Moon Hee¹ · Lee, Miok¹ · Yi, Myungsun²

¹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Muan
²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essential meanings of suffering experienced by suicide attempt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in 2009 through individual narrative interviews from 7 suicide attempters. Texts from literary works and movies containing suicide were also included as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hermeneutic phenomenology of van Manen. **Results:** Thirteen themes were identified in four dimensions. In the dimension of 'lived body', 'unbearably sweet temptation to death', 'body surrendered by emotional damage', 'chaos in life and death', 'squashed body by the heavy weight of life', and 'loss of meaning in life' were identified. 'The black hole, one is not able to get out' represents the experience in the dimension of 'lived space', 'The moment on the edge of a profound abyss' and 'the worst present and hopeless future' represent 'lived time'. In the dimension of 'lived human relation', 'I who am alone in the world', 'fear of being abandoned', 'unbreakable relationship trap', 'I who am not recognized' and 'guilty feeling' were included.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should be helpful in developing personal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s by showing the various types of suffering deeply ingrained into the personal history of suicide attempters.

Key Words: Attempted suicide, Qualitative research, Psychological stress, Personal narratives, Life change ev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은 2010년에는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다(Kim, 2012).

자살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생명을 소중

히 하는 윤리와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혼란시키기도 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자살을 선택하고 시도하는 것은 본인에게 몹시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이 사건은 남은 사람에게도 씻지 못할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의 자살 실행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민관이 자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높은 자살률은 지속되고 있어 관심과 우려가 심각하다.

자살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

주요어: 자살시도, 질적 연구, 심리적 고통, 개인적 내러티브, 생활변화사건

Corresponding author: Lee, Miok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Muaneup, Muan 534-701, Korea.
Tel: +82-61-450-1816, Fax: +82-61-450-1801, E-mail: okmilee@cdu.ac.kr

투고일 2013년 10월 28일 / 수정일 2013년 12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로 개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렇듯 자살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살은 훨씬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로 죽음에 이르는 연속성을 가지며,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질적인 특성을 거슬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복합적인 행위이다(Joiner, 2010). 자살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으로 사회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록 자살은 개인적 원인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그 현상의 이면에 감추어진 원인은 바로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다(Berk, 2006). 즉 자살이라는 특정 개인의 행위가 사회 환경적 영향, 또는 가족 응집력의 이완, 자살 수단을 차단하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살을 욕구의 좌절과 내향화된 분노, 파괴의 본능, 환상, 손상된 자아의 회복 욕구라고 보았으며, 심리학에서는 절망감, 극심한 심리적 고통, 개인적 취약성, 충동성, 통제에 대한 의지, 도움의 호소로 보았다(Jamison, 1999). Kim과 Lee (2003)는 자살의 핵심 속성으로, 반복되는 고통으로 인한 번민성과 고통을 내러놓으려는 해방성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자살은 복잡한 현상이며 자살의 동기도 매우 다양하지만, 자살 원인의 핵심에는 심리적 고통(suffering/psychache)이 있으며(Lakeman & FitzGerald, 2008; Moore, 1997; Shneidman, 1996) 자살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고통스런 정신적 삶을 정지시키는 것이어서(Shneidman, 1985), 자살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살에 이르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자살 관련 연구는 대부분 자살의 원인과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고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노인, 성인, 청소년 등 관심 연령층의 자살 실태 또는 자살 영향요인의 관련성(Kim, Chae, & Bae, 2012; Kim & Lee, 2009; Park & Choi, 2013)을 밝히는 조사연구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히 간호영역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Park, 2008)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살에 대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폐된 현상인 자살의 고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살의 예방이나 자살 시도자의 효과적인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자살에 이르는 심리적 고통을 자살자의 시각에서 보는, 고통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자살 시도자의 깊숙이

숨겨진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자살에 이르는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살예방에 궁극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시도자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깊숙한 고통의 의미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자살시도자가 죽음을 선택하게 한 그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에 대한 지향적이고 풍부하고 깊이 있는 텍스트를 생성해 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의 삶의 역사 속에 먼먼이 침전되어 있는 고통의 경험을 탐색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van 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접근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van Manen의 접근 방법은 사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물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한다는 현상학과 모든 현상들은 해석된다는 입장을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자살시도자의 고통에 대한 생생한 체험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 S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살시도자로서 인지능력이 손상되지 않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자원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총 7명의 자살시도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Table 1). 평균 연령은 33.3세로서 남성이 4명이고 여성이 3명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명이고 대학교 졸업이 3명이었다. 미혼이 5명이었으며, 5명이 종교가 없었다. 직업에서는 3명이 무직, 2명이 비정규직,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정규직이었으며 1명은 학생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로부터 개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Age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Religion	Occupation	Economic status	History of PT	No of suicidal attempt
1	26	Male	Single	University	None	Student	Middle	None	1
2	40	Female	Bereaved	High school	None	None	Low	AP	2
3	39	Female	Married	High school	None	NRE	Low	None	1
4	28	Male	Single	College	None	NRE	Low	None	1
5	39	Male	Single	High school	Protestant	None	Low	None	1
6	36	Male	Single	College	None	None	Middle	Depression	1
7	25	Female	Single	High school	Catholic	FTE	Low	None	1

PT=psychiatric treatment; AP=alcoholic problem; NRE=non regular employee; FTE=full-time employee.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참여자에 따라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의 면담을 하였으며, 각 면담은 약 1~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서울시 소재 일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실을 이용하였고, 질적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수년간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해온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였다. 면담 방법은 비구조화된 심층면담으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험한 삶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수용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하였고 면담 후 곧바로 필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필사 작업에서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 몸짓, 표정 등 면담 중에 관찰된 내용을 삽입하여 참여자의 체험이 생생한 본질에 가깝도록 작성하였다. van Manen (1990)의 방법에서는 체험에 대한 실존적 탐구를 위해 고통의 어원을 추적하고 예술 작품인 영화, 소설, 시에 포함된 자살에 대한 고통을 자료로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어원, 문학과 예술, 그리고 실제 연구참여자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어원의 추적

‘고통’이라는 단어에 나타난 한자의 고통(苦)은 시경의 ‘수양산 쓴 나물’과 여씨춘추의 ‘외롭고 우울한 가슴앓이’, 맹자의 간난신고의 ‘뼈를 깎는 모진 상황에서 경험하는 극단의 정서’로 볼 수 있다. 痛(통)은 ‘병들어 누운 사람의 몸을 관통하는 아픔[痛病也]’으로 질병 혹은 상처로 인한 아픈 감각이다. 노온서전(路溫舒傳)에 ‘사람이란 고통스러우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夫人情安則樂生 痛則思死]’이어서 고통이 죽음과 연결됨을 함축하고 있다. 영어로 고통을 뜻하는 suffering에서 suf는 ‘아래’를, fer는 ‘옹기다’, ‘견디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suffering은 힘든 고통을 아래에서 견디는 것으로 인내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자와 영어에서 고통은

공통적으로 모질고 쓰디 쓴 현실의 괴로움과 아픔, 외로움, 홀독함을 참고 견디는 속성을 담고 있다. 즉 고통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대처태도와 행위가 있으며 그 정서가 극에 달할 때 죽음으로 옮겨가는 경과가 포함된다.

2) 문학과 영화에 나타난 자살

문학예술작품은 인간의 실존적 경관을 넓혀주는 이야기로서 인간조건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통찰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자살은 수많은 소설과 영화, 시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자살동기에 대한 해석은 그 자체로서 무한한 탐구영역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인공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문학작품 몇 편을 선택하여 자살동기에서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주인공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 2편, 소설 3편, 시 3편을 선정하였다.

영화는 주인공이 자살하는 이창동의 「박하사탕」, 앨런 J 파쿨라의 「소피의 선택」을 선정하였다. 소설은 주제에 자살이 포함된 고전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서머셋 몸의 「비」,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선정하였고, 시부문은 자살이 제목에 포함된 류시화의 「자살」과 정호승의 「자살바위」, 「자살 나무」를 자료로 선택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고 수업, 세미나,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van Manen (1990)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나온 자살 관련 텍스트와 참여자의 경험 중에서 자살과 고통에 관련된 텍스트를 분리하여 현상학적 민감성이 돋보이는 언어로 변형하는 창조적이고 해석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반성은 체험의

구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잡이로서 생활세계의 4 실존체인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그리고 체험된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에서는 자살시도자가 체험한 고통의 본질을 그들의 체험 그대로 생생하고 풍부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해석된 체험 자료를 다시 생각하고, 참여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대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두텁게 쌓아가서 독자가 공감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현상학적 텍스트로 완성하고자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 소재 간호대학의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승인번호 2008-15). 특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윤리적 배려를 위해 연구 시작 전에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한 자살시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이 고통스럽거나 우울하면 치료에 의뢰할 수 있음과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자의 고통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7명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와 어원 및 문학과 영화에 나타난 자살에 대한 자료를 van Manen (1990)이 제시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실존체에서 총 1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1. 체험된 몸

1) 저항하기 힘든 달콤한 죽음에의 유혹

본 연구참여자들에게 죽음은 친숙한 주제로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도 고통스런 삶의 순간에 쉽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선택하는 가족들을 보며 죽음 너머에 있을 평안한 세상을 가슴 한 켠에 지니고 있는 듯했다. 삶이 잠시 힘겨울 때면 어김없이 “죽으면 편할 텐데” 하는 죽음의 유혹이 손을 내밀곤 하였다. “죽음이 정말 쉽게 느껴졌어요. 자전거로 한강을 건널 때...아,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더 쉽구나.” 라고 생각했던 참여자의 진술처럼 죽음의 생각은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자살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힘겨운

Table 2. Major Themes of Sufferings in Suicide Attempters

Dimension	Theme
Lived body	Unbearably sweet temptation to death Body surrendered by emotional damage Chaos in life and death Squashed body by the heavy weight of life Loss of meaning in life
Lived space	The black hole not able to get out
Lived time	The moment on the edge of profound abyss The worst present and hopeless future
Lived human relation	“I” who is alone in the world Fear to be abandoned Unbreakable relationship trap “I” who is not recognized Guilty feeling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항상 밑에 깔려 있어요. 뭔가 덮으면 살짝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무슨 계기로 눈이 덮다 쫓겨 내려가면. 녹아 버리면은 드러나구. 드러나구 하는...(참여자 1)

아니... 죽음에 대해서 저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죽는다는 걸. 저 한 7살 때부터(엄마가 떠나고 난 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싫으니까, 무의미하니까요.(참여자 7)

2) 상처로 웅이진 몸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와 이혼, 폭행, 가족의 자살, 임신 중절 등, 온갖 상처의 흔적들은 웅이가 되어 참여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 상처는 삶의 과정에서 반추되며 새로운 상처를 만들곤 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자들이 체험한 고통의 핵심으로는 ‘반복되는 상처의 고통’, ‘웅어리진 분노’, ‘힘오스런 나’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에 있어 마음의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었으며, 겨우 아물어 가는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덧입혀지는 아픔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저는 그 옥상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갇혀서 그 소리 듣는 거니깐. 차라리 죽는 게. 중학교 때나 중학교 3학년 때나 그 정도되었을 텐데. 그 때는 한두 달을 그냥. 완전히 진짜 그런 생지옥이 없었어요. 끔찍했던 기억들이... 황당했죠 뭐. 또 뭐 2번 살인은 못 저지르겠더라고요. 혼자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진짜 하나

남하고 나만 밖에 모를 일들이 너무 많고.(참여자 2)

폭력적이고 결핍된 환경, 무관심과 가난 등으로 기본적인 돌봄도 받지 못한 어린 시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해야만 했던 억울함과 차마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된 분노는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쌓여 단단한 응어리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또한 유년시절의 결핍된 삶을 보상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간절히 원했다. 부모들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주변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자신이 너무나 싫어했던 방식으로 겨우 삶을 꾸려나가는, 자신이 원했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마저 밋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것을. 그것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참여자 3)

저번에 그런 일(자살시도)이 있었을 때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정말 진짜 아비질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휴(눈물).(참여자 2)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말하고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노시고 저는 집안일도 하고 학업도 하고, 친구들과하고 잘 못 놀았어요. 친구들이 너는 부엌데기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 한 번씩 싸우고 이러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 때문에 어찌됐건 학창시절을 다 포기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배신감도 표현 못하겠고, 또 무서워했어요. 어머니를, 무서워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계속 쌓인 것 같아요.(참여자 1)

특히, 순결을 상실한 여성 참여자의 상처 입은 몸의 체험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성의 순결의 상실은 종종 자살로 이어지곤 하였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춘기의 소녀가 어찌다 가지게 된 성관계는 몸이 더럽혀지고 훼손된 느낌, 죄책감과 분노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가져왔다. 그것은 순결하고 온전해야 하는 몸에 대한 근원적인 지향과, 이전의 온전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었다.

처음 성관계를 하고, 엄청 울었어요. 나를 예뻐해 준 사람들 얼굴이 생각나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지 않겠구

나... 사춘기 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 또래 여자 중에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전화를 받은 아줌마가 수화기 너머에서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 거짓말로 느껴졌어요. 그 상처는 아픔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참여자 7)

3) 두 마음으로 인한 혼란

참여자들을 상반된 두 가지 마음, 즉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자신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고통을 겪으며 혼란스러워 하였다.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차마 죽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자살을 시도하지만, 살고 싶다는, 살아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 하였다. 참여자의 이야기와 시 「자살바위」 그리고 인용된 유서에 죽음과 삶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고통스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자살바위에 가보았습니다.

자살은 하지 않고 오줌만 누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자살바위에 가보았습니다. 「자살바위」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나 약 먹었어요. 우웁 해가지고 다 토했죠. 그 다음에 차타고 OO병원에만 거예요.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좀. 내가 그냥 죽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도 들구. 살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구. 반 반이었다니까요. 왔다 갔다 했다니깐요. 죽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살아서 다행이다 그렇게.(참여자 5)

4)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휘청대는 몸

참여자들은 세상을 헤쳐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원과 능력으로 자신의 몸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알코올중독인 남편,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자녀 양육 등 과도한 삶의 무게로 휘청거리고 소진되어 갔다.

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거 막으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쇼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깐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자리에 누우면. 아침에 눈 좀 못 떠졌으면. 그렇게. 진짜 힘들 때 그랬었거든요. 눈뜨는 게 싫었어요. 자다가 그

냥 영원히 그랬으면 잠들었으면.(참여자 3)

다음의 시에서 생명이 스러지는 안타까운 목숨의 약한 떨림이 느껴진다. 이러한 시와 참여자의 소진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빨래 줄을 걸고 너의 팔에 내 목을 매다나이
겨울날 가지 끝에 말라붙어 있는 나뭇잎처럼
간간히 바람에 흔들리나니 「자살나무」

눈을 깜박이는 것마저
숨을 쉬는 것마저 힘 들 때가 있었다.
나무가 흙 위에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지고 싶었다. 「자살」

5) 의미의 상실

모든 참여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힘겨운 삶을 지속해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고통스러워하였다. 참여자들은 그간 삶을 지탱해온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마저도 삶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함을 인식하며 힘겨워하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을 견어내야 하는 동기의 근원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견디며 살아온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다.

고통스럽고 의미가 없어요. 전, 그냥(웃음) 앞으로 제가 얼마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머 거기에 대한 머, 기대라는 거는 제가 솔직히 그냥 저는 자신이 없어요.(참여자 2)

자식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죽으면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여자 3)

2. 체험된 공간

1) 헤어날 수 없는 늪

참여자들은 실타래처럼 얽힌 현실적인 문제들과 무력감으로, 깊은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다. 지옥과 같은 삶은 결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삶은 지옥과 같았고, 이러한 고통스런 공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진짜 벗어나고 싶다는. 진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그때 그랬잖아요. 전 정말 싫다고. 늘 어릴 때부터 그 갖고 있던. 벗어나고 싶었던 거. 그게 이 나이까지도.(참여자 2)

지금 현재는 모든 것에 내가 쌓여 있는 듯한 모든 게 나를 누르는 듯한 상황이고 모든 게 차라리 막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모든 거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막 누르고 있는...(참여자 6)

3. 체험된 시간

1) 벼랑 끝에서 마주한 결단의 순간

참여자들은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해 왔지만, 이제 그 고통은 극에 달하여 삶과 죽음을 결정해야 하는 벼랑 끝의 순간을 맞았다. 그들이 마주한 시간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 끝내야 하는 시간이었다. 소설 보바리 부인에서 고통 속에 빈사상태로 지내던 보바리 부인이 순간 자살을 결행하였듯, 참여자는 반복되어온 고통을 단숨에 끊고자 한다.

빈사상태 처지에서. 자포자기한 그 비장한 느낌은 이제 거의 기쁨으로 변하여. 이제 잠이 오고 모든 것이 끝나겠지 「보바리 부인」

죽고 싶냐고, 끝내고 싶냐고? 아버지는 끝내 막 끝낸다는 말은 안했으니깐. 그렇게 끝내고 싶냐고. 끝내고 싶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끝내자고. 근데 그게 진짜. 순간 몇 초, 그 때 딱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늘 이 시간까지, 40년 가까이 맨 날 그랬는데, 한 번도 두려워서, 한 번도 두려워서 못했는데. 그냥 단숨에 결심이 서더라고요. 끝내자. 지긋지긋한 거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참여자 2)

2) 최악의 현재, 그러나 나아질 것 없는 미래

참여자들의 삶은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순간에 봉착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현재의 시간이 지나간다 해도 아무 것도 더 나아질 것이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절망의 고통으로 빠져 들었다.

얼마나 최악일까. 정말 얼만큼 더 망-망가져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을 언제까

지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인지.(참여자 2)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살아보았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참여자 7)

4. 체험된 인간관계

1) 세상에 홀로인 나

척박한 현실을 겪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이 ‘세상에 나 홀로 있다.’ 라는 느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데, 이때 핵심적인 체험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연결이 끊어짐’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옆에 있으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힘든 시간을 저 혼자 보내야 되고(울음). 저한테는 유독이 그게 막 너무 힘겨운 거예요.(참여자 3)

아 뭐 저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온다든가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뭐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자살 쪽으로 이제 생각을. 왜 전화가 안 올까 뭐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고. 무조건 앞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건 못 느끼는테요. 음, 옆에 앞에 한 명도 없을 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와 닿죠.(참여자 4)

2)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참여자들은 유년기 부모의 가출, 이혼과 자살, 그리고 사별 등으로 혼자 남겨졌던 두려운 경험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고, 또 다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어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의 고비에서 되살아나 괴로움으로 다가 오곤 했다.

엄마가 무책임하게 쫓아다녀서 나를 낳고 바람이 나서 간 거죠. 애를 가져서 이혼한 거거든요. 엄마의 존재가 작기 때문에 상처가 크진 않다 해도 정말 싫어요.(참여자 7)

사소한 것 하나에 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찌지. 확인 받고 싶고... 내가 쉽게 내 처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는데...(참여자 6)

3) 벗어날 수 없는 인연의 덫

참여자에게 가족의 인연은 끊임없이 부당하게 돌보아달라는 부담과 상처를 주는 고통의 사슬이었다. 병든 몸으로 결혼

하여 아끼만 남기고 사별한 남편, 알코올 중독과 신용 불량자, 폭언과 폭행으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아버지 등 고통스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인연의 도리와 애증의 갈등으로 힘겨워 하였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한 번은 어디로 갔다고 출장을 나갔는데. 탈진해 쓰러진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그 사람이 일부러 할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저한테. 근데 미울 때는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걸 심어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만,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시댁에서도 천사같다고.(참여자 3)

저번에 그런 일(자살시도)이 있었을 때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진짜 아버지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휴(눈물). 그러나...(참여자 2)

4)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나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부여되는 의미에 의해 존재가 확인되고 완성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마치 노숙자가 된 듯, 투명인간인 듯,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소외감과 무가치감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인식되며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의미를 잃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시켜주지 않으니까 굉장한 소외감과 존재감이 없어지죠.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제일 친한 친구도 나를 못 알아봐주나. 그러니까. 저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며는 자살 충동을 더블로 느끼게 되지요.(참여자)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아무 곳도 갈 곳이 없다는 거. 노숙자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결국 거기가 제일 편하니까. 오라는 사람 없어도 그냥 있으면 되니까.(참여자 6)

5) 죄책감

참여자들은 가족의 자살과 불행한 죽음, 무능하고 폭력적인 가족에 대한 미움, 인공 임신 중절 등, 어쩔 수없이 겪어내야 했던 삶의 어두운 역사가 자신의 탓인 듯, 엄습해오는 죄책감의 고통은 가슴을 누르곤 하였다.

나는 내가 아무리 병에 걸렸다치더라도 그렇지 한 사람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중략) 생각해보면 다 저로 인해 발생한 문제잖아요.(참여자 2)

가끔은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엄마가요. 소독약병을 숨기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거를 말을 안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 약을 먹고 거품을 물면서. 그제서야 누구한테 연락을 했구요. 이제 큰 언니가 막 어떻게 달려와 가지고 병원에 연락해서 앰블런스가 와가지고 엄마를 싣고 갔는데, 결국 좀 늦어가지고 사망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내가 죽인 거 같고. 가끔 가다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건가?(참여자 6)

최종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13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살시도자의 고통에 대한 현상학적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은 미지의 두려운 경험이며,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한 참여자들에게는 죽음은 친숙하고, 오히려 쉽고 편하게 느껴졌다. 성장과정에 겪은 가족들의 죽음과, 걸핏하면 “죽고 싶다”던 부모의 말은 어느새 삶속에 깊이 새겨져 죽음이 곧 해결이라는 주제로 깊이 뿌리 내렸다. 이렇게 한번 자리 잡은 죽음의 유혹은 삶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손을 내밀곤 하였는데, 이를 뿌리치는 것은 힘겨운 고투였다. 그들은 가족의 자살, 부모의 폭력과 결핍된 환경 등으로 상처를 입고,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는 가슴에 응어리지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혐오감에 몸서리친다. 삶의 여정에 참여자들의 몸은 또 다른 상처로 웅이지고, 반복되는 상처의 아픔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상처투성이 참여자의 몸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자녀 양육의 부담과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고 등, 과중한 삶의 무게로 짓눌려 휘청거렸고, 한 가닥 삶의 의미마저 소실되어 갔다. 이렇게 고통에 휩싸일 때,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차마 죽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으로 혼란스럽고, 죽음의 길로 치달는 마음을 제어 할 수 없어 자살을 결행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모순된 두 개의 자신에 당황스러워졌다.

그들에게 체험된 공간은 실타래처럼 얽힌 현실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 마치 헤어날 수 없는 늪을 허우적거리는 듯 고통스런 것이었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최악의 현재에서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고통의 정점에서 삶

과 죽음을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을 체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지친 몸을 알아봐 주고 상처를 보듬어 주며 버거운 삶을 함께 헤쳐 나갈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홀로 외로움에 울었다. 애써 손을 내밀어 연결되고 싶어도 다시 버림받을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고, 가족의 인연으로 끊임 없이 상처와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굴레는 훗날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들은 겹겹의 아픔으로 소진되었고, 한줄기 바람에도 “나무가 흙 위에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지고 싶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죽음을 통해 끝내고자 했던 자살시도자의 고통의 본질을 현상학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인간관계의 4 실존체를 중심으로 13가지의 주요 주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의 경험의 핵심에는 심리적 고통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Lakeman & FitzGerald, 2008; Moore, 1997; Williams, 2001; Shneidman, 1985).

본 연구결과, ‘체험된 몸’에서 나타난 주제들을 보면,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면으로 체험되어 성장기 내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손쉬운 해결책으로 학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사 행동을 한 가족 역사가 있을 때 자살을 잠재적 문제 해결방법으로 생각한다는 보고(Shneidman, 1985)와 같은 맥락이다. Joiner (2005)는 자살을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을 사랑하게 되는 병’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나타난 ‘저항하기 힘든 달콤한 죽음에의 유혹’은 이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처로 웅이진 몸’은 삶의 과정에서 겪은 상처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은 것과 함께, Sun, Long, Boore와 Tsao (2006)의 연구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처의 경험이 겹치게 되는 것을 핵심적인 자살의 동기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살이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순한 충동이 아닌 긴 세월 속에 축적된 개인의 역사에서 비롯됨을 말해준다(Shneidman, 1985).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무력감과 분노의 심연에서 자살을 결심하지만, 한편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였는데 이러한 양가감정은 자살자의 공통적인 심리이다(Im & Kim, 2011; Joiner, 2010; Shneidman, 1985). Rogers (2001)는 존재론적 긴박함의 바탕에서 자신과 타인의 개념에 대한 주요한 환경적 도전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영화 「소피의 선택」에서도 자녀를 나치 가스실의 죽음으로 보내고 살아남은 주인공은, 삶의 여정에서 덧입혀진 독한 상처와 분노, 죄책감, 자기소외의 고통 때문에, 사랑과 생명의 손짓을 외면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살의 충동이나 유혹은 새로운 삶을 향한 동경이고, 시급한 영적 변화에 대한 인격 내부의 강력한 요구여서 병적인 자아를 죽음으로 재생하려는 시도로 보기도 하였다(Lee, 2007). 이러한 결과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 경험과 자기 상해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Behnken, Le, Temple, & Berenson, 2010; Kryszynska, Lester, & Martin, 2009)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체험은 단순한 자기 비난과 분노 외에 온전함의 훼손으로 인한 좌절의 고통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이 “나 돌아갈래”라며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럽혀진 몸으로부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회귀하려는 열망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보여 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체험된 공간’에서 나타난 주제인 ‘헤어날 수 없는 늪’은 Reeves, Bowl, Wheeler와 Guthrie (2004)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살 시도자의 절망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실존적 위기를 끝내는 것, 이도저도 못하는 딱 갇힌(being stuck)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삶의 부담으로 지치고 무감각해진 상태를 끝내려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머물러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주제는 머물 곳도 떠날 곳도 없었던 노인 자살 시도자(Im & Kim, 2011)에서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체험된 시간’은 ‘벼랑 끝에서 마주한 결단의 순간’과 ‘최악의 현재, 그러나 나아질 것 없는 미래’에 대한 주제들로서, 이는 자신의 현재를 완결된 시간으로 인식하고 ‘결단’하려는 욕구, 그리고 더 이상 지향할 미래의 시간이 없을 때,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를 인내하는 고통의 결과인 미래조차 절망으로 인지될 때 더 이상 버티길 포기하였다. ‘체험된 인간관계’에서 드러난 주제인 ‘세상에 홀로인 나’는 단절감, 소외감, 무존재감, 외로움 등 관계단절의 정서와 버림받는 두려움이 주는 고통을 표현하였다. Talseth, Gilje와 Norberg (2003)는 이를 단절감의 고통을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으로, 그러나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갈망으로 설명하였다.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절망감이 자살의 핵심적인 고통이며(Cutcliffe, Stevenson, Jackson, & Smith, 2006),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외로움의 경험은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를 잉태한다(Vanderhorst & McLaren, 2005)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관계는 한국가족의 도리와 효 문화에서 비롯된 인연의 굴레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가족갈등에서 무력감, 절망, 자존감 저하를 경험한 노인의 자살시도(Im & Kim, 2011)에서 나타난 바 있다. 정신적으로 뿌리 깊은 효사상은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여서 도리라는 덕목아래 반복적인 고통으로 체험되고 있었다. 이는 자살의 핵심 원인으로, Joiner (2005)는 중요한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감과 어떤 인간관계에도 소속되지 못한 좌절된 소속감을, Cutcliffe 등(2006)은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제시한 것과도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자살은 순간에 즉각적으로 결행되는 경우에도 자살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숙고를 거치는 주관적인 의식 과정으로, 자살시도는 현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음(Mitchel, Maltzberger, Jobes, Leenaars, & Valach, 2002)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살시도를 위한 중재를 개발할 때 시간성과 역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죽음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고(Joiner, 2010),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chneidman, 1996). 따라서 상호중재는 대상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역사에 은폐되어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간에 근거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들의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상자를 면담하여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자살의 고통을 철저히 드러내고 자살시도자의 삶의 과정에 농축된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대부분이 청장년층이어서 전 연령층의 체험을 다 담지 못하고, 소설 「비」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와 같은 도덕적 결함을 드러낸, 또는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난 존재로 추락함에서 발생한 자살 등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대상자의 고통경감이 자살예방에 중요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자살 시도자의 고통경감 간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과 후속연구로 가족과 같이 의미 있는 타인의 자살을 경험한 자살시도자의 고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자의 자살 결정에 이르는 고통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지닌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서, 개인적인 상처와 가족, 사회적 요인이 영커 자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가족이 주는 고통은 혈연으로 얽혀있거나 도리 같은 윤

리적 가치와 오랜 사회적 기대로 강요되고 있어서 개인이 벗어나거나 끊어낼 수 없는 강한 굴레이었다. 대상자의 고통은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반복되어 확대되는 특성이 있었으며 미래조차 절망으로 인식될 때 순간에 자살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시도자를 자살 고위험 집단으로 선별하고, 간호연구와 간호교육에 자살시도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서, 간호중재로 고통경감을 제공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체계적 지원이 반영되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인 자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Behnken, M. P., Le, Y. C., Temple, J. R., & Berenson, A. B. (2010). Forced sexual intercourse, suicidality and binge drinking among adolescent girls. *Addictive Behaviors, 35*, 507-509.
- Berk, B. B. (2006). Macro-micro relationships in Durkheim's analysis of egoistic suicide. *Sociological Theory March, 24*, 58-80.
- Cutcliffe, J. R., Stevenson, C., Jackson, S., & Smith, P. (2006). A modified grounded theory study of how psychiatric nurse work with suicidal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 791-802.
- Im, M. Y., & Kim, Y. J.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uicide attempts i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 61-71.
- Jamison, K. R. (1999). *Night falls fast: Understanding suicide*. New York: Random house.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T. (2010). *Myths of suicid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651-661.
- Kim, H. S., Chae, Y. S., & Bae, Y. J. (2012). The protective factors of suicide probability in religious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 1-8.
- Kim, J. S. (2012). *South Korean's suicide rate was the highest among the member nation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Retrieved November, 30, 2012, from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38682>
- Kim, Y. B., & Lee, J. S. (2003). An analysis of suicide concep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394-401.
- Krysinska, K., Lester, D., & Martin, G. (2009). Suicidal behavior after a traumatic event. *Journal of Trauma Nursing, 16*, 2, 103-110.
- Lakeman, R., & FitzGerald, M. (2008). How people live with or get over being suicidal: A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4*, 114-126.
- Lee, D. H. (2007). The meaning of suicide and its management in analytical psychology. *Shim-Sung Yon-Gu, 22*, 29-23.
- Mitchel, K., Maltsberger, J., Jobes, D., Leenaars, A., & Valach, L. (2002). Discovering the truth in attempte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56*, 424-437.
- Moore, S. L. (1997). Phenomenological study of meaning in life in suicidal older adul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1*, 29-36.
- Park, E., & Choi, S. J. (2013).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related risk factors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 88-96.
- Park, H. S. (2008).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uicide and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513-521.
- Reeves, A., Bowl, R., Wheeler, S., & Guthrie, E. (2004). The hardest words: Exploring dialogue of suicide in the counselling process-a discourse analysi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4*, 62-71.
- Rogers, J. R. (2001). Theoretical grounding: The missing link in the suicide research.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79*, 16-25.
- Schneidman, E. (1985). *Definition of suicide*. New York: Wiley.
- Schneidman, E. (1996). *The suicidal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n, F. K., Long, A., Boore, J., & Tsao, L. I. (2006). A theory for the nursing care of patients at risk of suicid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 680-690.
- Talseth, A. G., Gilje, F., & Norberg, A. (2003). Struggling to ready for consolidation: Experience of suicidal patients. *Nursing Ethics, 10*, 614-623.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anderhorst, R. K., & McLaren, S. (2005). Social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Aging Mental Health, 9*, 517-525.
- Williams, M. (2001).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London: Penguin Books.
- Younger, J. (1995). The alienation of the sufferer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7*, 53-72.